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아버지를 기억하며 머무는 것은 너희가 계속해서 남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아주 달콤한 톨리이다. 이것은 너희가 계속해서 남들에게 알파와 베타를 소개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질문:** 변함없이 영구히 기억하며 머무는 쉬운 길은 무엇이나?

**대답:** 변함없이 영구히 기억하며 머물기 위해서는 너희의 몸과 모든 육신의 친척들을 다 잊어라. 걷고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동안 기억하며 머무는 연습을 해라. 만일 너희가 요가하며 앉아 있는 동안에 붉은 빛이라도 기억한다면 너희의 요가는 끊어질 것이며, 너희는 영구적으로 기억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자기들을 위해 명상을 주도해달라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청하는 자들은 요가하며 머물 수 없다.

**노래:** 오 밤의 여행자여, 지치지 마라! 동트는 목적지가 멀지 않다...

음 산티.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가의 문제다. 철시대는 밤이라 불리고 황금시대는 낮이라고 불린다. 너희들은 이제 철시대의 밤에서 황금시대의 낮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밤을 잊고 낮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의 지각에서 지옥을 지워야 한다. 지각은 “이것은 정말로 지옥이다”라고 한다. 다른 누구도 지각으로 이 말을 할 수 없다. 지각은 영혼에 들어있다. 너희를 밤에서 낮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바바가 왔다는 것을 영혼은 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오 영혼들아, 너희는 이제 천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처음엔 평화의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야 한다. 즉, 너희는 먼저 집에 대한 요기들이고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한 요기들이다. 죽음의 나라, 즉 밤은 이제 끝나야 한다. 너희들은 낮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것은 신의 요가라고 불린다. 무체인 신이 우리에게 요가를 가르친다, 즉 그는 우리 영혼들을 그와 약혼시킨다. 이것은 영적 요가인 반면 다른 것은 육신의 요가다. 너희 자녀들은 그저 한 장소에 앉아만 있으면서 요가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앉는 방식이 어떻든 남들도 같은 방식으로 앉도록 가르친다. 여기서 너희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앉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물론, 집회에서는 절도 있게 앉아야 하지만 요가 할 때는 너희 마음대로 어떻게든 앉을 수 있다. 너희들은 걷고 움직이는 동안에,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도 요가를 할 수 있다. 화가들은 요가를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요가를 하는 쉬브 바바의 그림을 그린다. 그가 비물질세계, 지고의 거주지에 머무는 우리들의 바바라는 것을 그들은 안다. 우리들도 역시 그곳의 주민들이다. 우리 영혼들은 그리로 가야 한다. 걷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이것이 너희의 지각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너희들은 타파샤에 특별히 앉게 해달라고 청하거나, 너희를 위해 명상을 주도할 누군가를 불러달라고 청하면 안 되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보들은 특별히 이런 요청을 할 것이다. 아이들이 제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특별히 어떤 장소에 앉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언제나 “바바, 바바!” 하며 그를 잊는 일이 결코 없다. 어린 아이들은 제 아버지를 더 많이 기억한다. 그들은 언제나 입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왜 팔로킧한 아버지를 잊느냐? 지각의 요가가 어째서 끊어지느냐? 너희는 입으로 “바바, 바바!”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영혼은 바바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이 요가를 하려고 특별히 어떤 장소에 앉는 습관을 기른다면 그것은 요가가 아니다. 신이 친히 너희들에게 신과의 이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요가의 주님, 요게슈와르라 불린다. 신이 너희에게, “너희들의 아버지 나를 기억해라!”라고 요가를 가르쳤다. 디디 (손위의 자매)가 너희들 앞에 앉아서 명상을 주도할 때는 요가를 훨씬 더 즐길 수 있다고 느끼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자녀들의 요가는 영구히 지속될 수 없다. 예컨대 너희가 심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요가를 주도해 달라고 청하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지각으로 기억하는 문제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온갖 유형의 요가는 잘못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요기가 아무도 없다. 사실 너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것이 요가다. 만일 너희가 망고를 좋아한다면 너희의 요가는 그것에 연결된다. 붉은 빛을 좋아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것은 빛과 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몸과 모든 육신의 친척들을 잊고 나하고만 요가를 해야 한다. 오직 그제야 너희는 유익을 얻고 죄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만이 와서 너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없다. 나머지들은 모두 너희에게 타락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천국은 구원이라고 불리는 반면, 해방의 나라는 우리 영혼들이 거주하는 우리의 집이다. 지금 이때에 모든 이가 타락하게 만든 것은 인간의 지시들이다. 무체인 아버지가 와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러면 우리는 반 사이클 동안 구원된 상태로 머문다. 거기서는 아무도 신을 찾으려고 또는 해방이나 삶 속의 해방을 얻으려고 문간마다 비틀대며 헤매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문간마다 비틀대며 헤매는 것은 오직 라반의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뿐인데 너희가 추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신봉도 역시 시작되어야 한다. 너희가 이제 몸을 벗고 쉬바의 사원으로 가리라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황금시대는 무한한 쉬바 사원이다. 지금 이때 이것은 사창가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쉬브 바바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요기가 아닌 보기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하는 자)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와서 들으라고 하면, 그들은 너희에게서는 단 두 마디만 들겠다고 얘기한다. 두 단어, 즉 만마나바브와 마디야지바브는 “나를 기억하고 너희의 유산을 기억해라”라는 뜻이며 아주 유명하다. 오직 이 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만 너희가 삶 속의 해방을 받는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병들지 않을 것이고, 사이클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부유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 너희는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유해진다. 만일 뭔가 옳다면 너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바보라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알파와 베타는 두 가지 표현이다. 알파는 알라, 베타는 창조다. 바바는 알파, 베타는 주권이다. 너희들 중 일부는 주권을 받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된다. 너희 자녀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너희가 얼마나 오래 아버지를 기억했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써야 한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 슈리마트를 준다. 아버지는 너희 영혼들을 가르친다. 사람들은 재산 때문에 참으로 많이 고심한다. 브라마는 재산을 많이 가졌었다. 자기가 알파에게서 주권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내가 이 재산으로 뭘 하겠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파에게 주고 주권을 차지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 바바는 이것을 바탕으로 “첫 번째 사람은 알라를 찾았고, 두 번째 사람은 주권을 받았네”라는 노래를 작곡시켰다. 그때 자기가 팔을 넷 가진 형상인 비슈누가 되리라는 것이 그의 지각에 들어갔다. 내가 이 재산으로 뭘 하겠는가? 그걸로 충분했는데, 왜냐하면 바바가 그의 지각에 잠긴 자물쇠를 열었기 때문이다. 바바는 부를 축적하느라 바빴지만, 주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당나귀처럼 힘든 일을 해야겠느냐? 그럼에도 바바는 굶지는 않았다. 바바에게 오는 이는 누구든 아주 잘 부양 받는다. 집에서는 그들이 굶을 수도 있다. 여기서 바바의 슈리마트를 따르는 자들은 바바에게서 아주 좋은 도움을 받는다. 바바가 이르는데, 모든 이에게, “무한한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이클에 대한 지식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탄 배가 건너갈 것입니다”라며 길을 보여줘라. 너희들의 배를 건너편으로 데려가려고 뱃사공이 왔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정화자와 뱃사공을 기억한다. 그러나 자기들이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편재한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쉬바의 형상만을 신이라고 언급한다. 그럴 경우 그들은 어쩌서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과 더불어 락쉬미와 나라얀까지도 역시 신이라고 부르느냐? 모든 이가 아버지가 된다면, 누가 유산을 주겠느냐? 신이 편재한다고 부름으로써 주는 분도 받는 자들도 남아있지 않다. 브라마를 통해서 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쓰여 있다. 쉬바는 맨 꼭대기에 서 있다. 쉬브 바바는 브라마를 통해서 신인들을 창조하므로 브라마도 역시 신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혼자만의 의무다. 불멸의 형상, 무체인 분이라고 노래로 불리는 것은 그에 대한 찬양이다. 영혼은 불멸의 형상이다. 어떠한 영혼에게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역시 불멸의 형상이다. 모든 이의 몸은 죽는다. 영혼에게는 결코 죽음이 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결코 불시의 죽음이 없다. 거기서 너희는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천국에 있는 경우 너희는 틀림없이 천국에서 환생한다. 여기서는 모든 이가 지옥의 주민들이다. 그들은 “아무개가 천국에 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그가 틀림없이 지옥에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쉬운 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산야시들도 이것을 모른다. 그들은 다만 빛이 빛에 합쳐졌다는 말만 한다. 바라트의 주민인 신봉자들은 신을 기억한다. 신봉은 가정의 길이기 때문에 신봉자들은 가정을 가진 자들이다. 저 사람들 (산야시들)은 빛의 원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빛의 원소와 요가를 해서 그것 안에 합쳐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영혼들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결코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오직 지고의 영혼 한 분만이 진리다. 이제 너희는 진리인 분을 동반하고 있으니 다른 모든 동반은 거짓이다. 철시대에는 진리를 말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창조자나 창조에 대한 진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지금 너희에게 모든 경전들의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들은 주된 경전, 즉 기타에 지고의 영혼의 이름 대신에, 지금 이때에는 크리스나나 추한데도 인간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너희들은 지금 크리스나의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 너희는 그를 두 가지 색조로 묘사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그를 검푸르게 묘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밝은 피부색으로 보여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옥의 장작더미 위에 앉음으로써 그는 추해지고, 지식의 장작더미 위에 앉음으로써 그는 아름다워집니다”라고 설명해라. 너희들은 고립의 길과 가정의 길, 두 길을 다 보여줘야 한다. 그 다음에 철시대는 황금시대가 된다. 황금시대 후에는 은시대, 동시대, 철시대가 있다. 영혼은 “내가 전에는 정옥의 장작더미 위에 앉아 있었지만, 반면에 지금은 지식의 장작더미 위에 앉아 있다”라 한다. 너희가 불순한 데서 천사의 나라의 주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 자녀들은 안다. 너희들이 요가 하고 있는 동안 뭔가를 창조하면, 그것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지각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 때는 너희가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다. 바바가 얘기하는데, 나도 역시 잊는다. 이것은 너무 미끄러워서 놓치기 쉬운 게임이다. 너희들은 아주 잘 연습할 필요가 있다. 너희는 변함없이 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없다. 걷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기억하며 머무는 연습을 해라. 화장실에 있을 때도 너희는 바바를 기억할 수 있다. 기억하며 머뭇머뭇함으로써 너희는 힘을 받는다. 지금 이때에는 참된 요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 외에는 너희에게 요가를 가르치는 자들 모두가 틀렸다. 신이 요가를 가르쳤을 때 천국이 창조되었다. 인간들이 요가를 가르쳤을 때 천국은 지옥이 되었다. 누군가 아주 약간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의 지각이 잠기게 되어 그는 10분이나 15분조차 기억하며 머물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할머니들, 아이들, 아픈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쉬워야 합당하다. 이것은 아주 좋은 톨리다.

심지어 귀머거리나 병어리인 자도 역시 “아버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는 유산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신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제가 당신에게 천국의 창조자, 무한한 아버지에게서 천국의 한결같은 행복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라. 너희는 작은 전단지 등을 계속 나눠줘야 한다. 너희들의 가슴에는 여기에 오는 자들이 어떤 종교에 속하더라도 그들에게 설명해주려는 많은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육신의 종교들을 다 버려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올 것이다. 제일 먼저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다른 것으로 들어가라. 그 전까지는 너희가 이동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고 아버지를 기억해라. 이것이 최상급의 측면이다. 용어는 알파와 베타, 즉 아버지와 유산, 두 마디뿐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알파에게 바치고 주권을 차지해라. 너희가 아버지와 유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차트를 기록 관리해라.
2. 잘못된 행위들은 행하지 마라. 영구히 끊임없이 기억하며 머무는 훈련을 해라.

**축복:**

신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동반을 경험함으로써 노력을 사랑으로 변화시켜라.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의 그의 사랑과 협조라는 무릎 위에 앉혀서 너희를 목적지로 데려간다. 너희 자녀들은 그저 신을 사랑하면서 그의 무릎 위에 머물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노력이 사랑으로 변할 것이다. 사랑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모든 과제를 수행해라. 밥다다는 매 순간마다 모든 관계로 너희와 함께일 것이다. 그는 봉사에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의 단계에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는 모든 관계에서 그 자신을 너희와 함께 하도록 그 자신을 내어준다. 너희는 그저 신을 사랑하고 때에 따라 그 관계로 그와 함께 머물기만 하면 되고, 외롭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슬로건:**

자아발전과 봉사의 균형이 성공의 수단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